

# “일반 응급환자는 어디로 가나요?”...응급실 대기 속출

### 코로나여파 병상 부족...발열증세 동반 일반환자 이용 불편 인력난도 심화...市 “병상 확보 등 의료 인프라 구축에 노력”

“이 시국엔 절대 아프면 안 되겠네요.” 최근 광주지역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발열증세가 있는 일반 환자나 자가격리자는 응급실을 곧바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주말 저녁, 자택에서 휴트

레이닝을 하던 중 무릎을 다쳤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 시간 가량 무릎이 펴지지 않아 결국 119를 불렀다. 하지만, A씨는 일반 응급실을 갈 수 없었다. 운동 중 오른 체온이 37.5도가 넘는 탓이었다. 발열을 동반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남아있는 병상은 없었다.

구급차에서 환자를 대기하던 A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열이 떨어진 다음 날에야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응급실은 이전 없는 것 같다”며 “당장 숨넘어가는 일은 아니었지만 위급 상황에 처한 응급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여름, 자가격리 중이던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새벽시간 극심한 복통을 느낀 B씨는 코로나19 관련 상담 전화 1339와 보건소

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자가격리 중인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 B씨는 아쩔 수 없이 자택에서 통증을 견뎌야 했다. 보건소 측이 수소문한 끝에 약 3시간 만인 새벽 5시경에야 B씨는 대학병원 응급병상으로 이송됐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맹장이 터져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즉시 응급실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응급실 내 격리 구역이 있는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

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4개소로 총 20개소다. 이 가운데 감염병 국가 지정병상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응급격리실이 있는 시설은 4곳뿐이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 이처럼 응급병상이 있는 시설이나 코로나 격리구역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환자 이송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병상 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을 공유·제공하며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의료진 수에 한계가 따르다보니 응급실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비해 병상이 많이 확보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며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응급응급실 등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진기자

### 설 연휴 기간 화재 발생 평상시보다 25% 많다

설 명절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30건가량의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 기간 화재는 총 2천871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5명이 숨지고, 113명이 다쳤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143.5건으로, 5년간 전체 하루 평균(114.4건)보다 25%가량 많았다. 설 연휴 화재 발생 장소는 비(비)주거 시설이 30.9%, 주거시설이 29.9%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전체 사망자 가운데는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82.9%에 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규모 숙박 시설이나 주거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법단체설립추진위원회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흥식 구속부상자회장의 즉각 퇴진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5·18 구속부상자회장 퇴진·검찰 수사” 촉구

#### 8개 5월 단체 “금품수수설 등으로 명예훼손...진상 밝혀야”

5·18 관련 8개 단체(도청항쟁지도부, 5·18민중항쟁정투사회보불동우회, 5·18민주항쟁민중기상동지회,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운산원 기념사업회, 민주적공법단체설립추진협의회, 오월을 사랑하는 일반회원 모임)가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회장은 경찰 관계자, 개발업자들간 결탁해 역대 금품 수수설로 오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사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회장은 독단적으로 경찰청 관계자와 결탁해 전국 파출소 폐쇄건물

불법개발 사업을 추진해 5월 단체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며 “옛 민주금성파출소를 포함한 전국 200여곳의 파출소는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 회장은 구속부상자회를 사설 단체로 변질시켜 각종 이권 개입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다”며 “오월 단체의 절대 다수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파렴치한 전과 전력이 있는 자는 공법단체인 5월 단체의 임원에서 배제해 시민의 공의와 5월 정신에

부합하는 단체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기자

#### ‘과로사 1차 합의’ 택배 총파업 피해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을 다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총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이날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부파’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

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남부소방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호응

광주 남부소방서는 화재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지난 19일 남구 행암동 모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안 내부 및 집기류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피해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유관기관과 화재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썼다. 남부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화재재

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화재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긴급생활물품 지원 및 피해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정진모 서장은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이 지원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피해 주민을 위해 복구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 사고 트럭 상가 돌진 ‘아찔’

○...지난 20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신타페 차량이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1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 여파로 1t 트럭은 인근 건물

1층 상가에 위치한 헬스장으로 돌진했으나,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 직후 뒤따라 주행하던 차량 4대도 잇따라 충돌했고, 주변 주행 차량 2대는 사고 파편이 튀겨 파손.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며,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김동수기자

http://www.kukje9.co.kr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